중국 자율주행 밸류체인에 주목할 시점

Hana China Weekly | 2026.1.9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허사이테크(2525.HK): 엔비디아 공식 라이다 파트너사 선정 및 CAPA 확대로 주가 강세 시현

- 1/5 허사이테크는 2026년 CES에서 2026년 연간 LiDAR 생산능력을 기존 200만 대에서 400만 대 이상으로 두 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또한 허사이는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태국 방콕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며, 해당 공장은 2027년 초부터 가동될 예정. 이를 통해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장한다는 계획.

- 1/6 허사이테크는 엔비디아가 개발한 자율주행용 기준 컴퓨팅 아키텍처인 NVIDIA DRIVE AGX Hyperion 10의 LiDAR 파트너로 선정됨. DRIVE Hyperion 10은 모든 차량을 레벨4 자율주행에 대응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준 플랫폼으로 완성차 업체와 개발자들이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AI 기반 자율주행 차량 플릿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허사이는 DRIVE Hyperion의 개방형 양산 대응 아키텍처에 공식 인증된 센서(카메라/LiDAR 등) 파트너사로 합류. 1/6 주가는 5.9% 급등 마감.

위라이드(WRD.US): 글로벌 로보택시 중 최초로 엔비디아 Thor X 칩 탑재

- 1/6 위라이드는 엔비디아의 글로벌 L4급 로보택시 생태계 파트너로서 자사 로보택시 GXR가 세계 최초로 NVIDIA DRIVE Thor X 칩을 탑재한 로보택시가 되었다고 밝힘. 해당 차량은 중국과 UAE에서 이미 완전 무인 상업 운행에 진입한 상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CES 2026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10년 내 전 세계 대부분의 차량이 자율주행화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NVIDIA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L4 로보택시 생태계를 강조했고, 그 중 위라이드를 핵심 참여 기업으로 소개.

샤오미(1810.HK): 예상을 뛰어넘는 전기차 인도량, 차세대 모델 출시 예정

- 1/4 샤오미는 2026년 전기차 인도 목표를 55만대로 제시. 이는 2025년 실적 41만대 대비 약 34% 증가한 수치로 샤오미 EV는 당초 2025년 인도 목표를 35만대로 설정했으나, 12월 초 이미 조기 달성한 바 있음. 추가로 2026년 중 총 4종의 신규 모델 출시를 계획 중이라고 밝힘.

- 1/7 샤오미 EV는 자사의 첫 번째 전기 세단인 SU7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차세대 SU7'을 오는 4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 차세대 SU7은 기존 모델의 주행 성능 중심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세부 사양이 대폭 개선되며 외관 및 실내 측면에서는 새로운 색상, 휠 디자인, 인테리어 옵션이 추가될 예정. 1/7부터 사전 예약을 개시하며 LiDAR 탑재로 보조 운전 및 안정 기능을 강화.

반도체

반도체: 중국 당국, 일부 테크 기업에 엔비디아 H200 칩 주문 중단 요구

- 1/8 로이터에 따르면 베이징 당국이 이번 주 일부 중국 기술 기업들에 대해 엔비디아의 H200 AI 칩 주문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향후 국산 AI 반도체 구매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 미국이 AI용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미국 설계 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엔비디아는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 이번 주문 중단 지시는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접근을 허용할지 여부와 그 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려진 조치. 이는 당국이 최종 정책 방향 결정 이전에 중국 기술 기업들이 미국산 AI 칩을 선제적으로 대량 확보하는 움직임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 또한,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엔비디아는 중국 고객들에게 H200 칩을 주문 시 전액 선결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 이는 중국 정부의 선적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엔비디아는 주문 이후 취소와 환불이 불가능한 조건으로 전액 결제를 요구하는 등 이례적으로 엄격한 거래 조건을 적용하고 있음.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현금 대신 상업용 보험이나 자산 담보 제공도 허용되는 것으로 전해짐.
- 이번 결제 구조는 엔비디아가 부담해야 할 재무 리스크를 중국 고객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중국 당국의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자금을 먼저 투입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중국 IT 기업들의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

반도체: 메모리 급등에 구매자 이탈 현상 발생

-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위축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현물 시장에서 메모리 칩 가격이 급등. 1/7 SCMP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선전 전자제품 도매시장에서 메모리 제품의 마진이 비정상일 정도로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구매자 이탈이 발생하고 있음.
- 12/26 노무라증권은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이 '클린룸(Cleanroom) 부족'이라는 구조적 병목에 직면해 있으며, 설령 지금 증설 결정을 하더라도 2027년 중반 이전까지 의미 있는 공급 확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 글로벌 수급 타이트닝은 중국 현물 시장에서도 가격 급등과 동시에 실질적 수요 감소를 야기.

바이두(9888.HK): Kunlunxin 홍콩 거래소 상장 예정

- 바이두 산하 AI 칩 사업부 'Kunlunxin'이 홍콩 IPO를 통해 최대 2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 1/7 개장 후 동사 H주는 최대 1% 가까이 하락했으나 해당 소식에 상승 전환. IPO 세부 사항은 논의 중이며 최종 조달 규모는 약 10억 달러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

Biren Technology(6082.HK): 상장 첫날 주가 96% 급등

- 중국 GPU 스타트업 Biren Technology는 1월 2일 홍콩증시에 정식 상장하며 공모가 대비 주가가 급등. 1/2 장중 최대 120%까지 급등하며 반도체 섹터 온기 확산. 상장 첫날(1/2) 주가는 96% 상승 마감.
- Biren Technology는 이번 IPO를 통해 약 55.8억HKD를 조달했으며 자금 대부분은 연구 개발 및 상용화 확대에 투입될 계획이라고 밝힘. 이는 중국 반도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2026년에도 AI 및 반도체 기업들의 상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화홍반도체(1347.HK): 화리마이크로 지분 전부 인수

- 12/31 화홍반도체는 상하이 화리마이크로전자의 지분 약 97.5%를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한다고 공시. 화홍반도체는 기존에 화리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번 거래를 통해 화리에 대한 완전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음. 이번 인수로 화홍반도체는 화리가 보유한 65/55nm 및 40nm 로직, 첨단 공정 기술과 함께 월 약 3.8만장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화홍반도체의 생산 기반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바이두

상장 국가

홍콩,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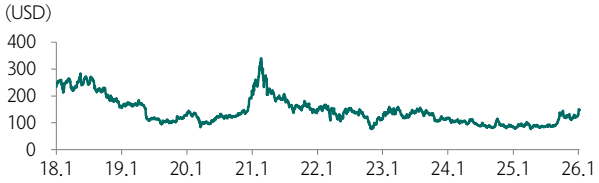
섹터

온라인 서비스

시가총액(조원)

71.8

최근 주가 추이



국산 반도체 대규모 상용화에 앞서고 있는 'Kunlunxin'

- 중국의 AI 스타트업 IPO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초 바이두도 AI 반도체 자회사(지분 60%)인 Kunluxin의 홍콩거래소 상장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주가가 18% 이상 급등세를 시현. Kunlunxin을 통해 지난 10년 이상 AI 칩 자체 개발을 지속해왔고, 중국의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 중에서는 화웨이 다음으로 AI 칩 대규모 상용화에 가장 앞서는 중. 2025년부터 바이두는 Kunlun 칩 기반의 컴퓨팅 인프라 확장에 주력해왔으며 최신 3세대 P800 칩을 대규모로 연결한 데이터센터급 추론용 컴퓨팅 인프라 확장을 통해 100개 이상 기업의 대형 모델을 지원.

2026년 국산 AI 칩 수요는 더욱 강해질 전망

- 2025년부터 중국은 정부 주도로 AI 칩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 지난 몇 년간 미국산 고성능 칩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대형 테크 기업들은 자체 개발 또는 국산 칩 테스트 속도를 높여왔고, 중국 내 유일한 선단 공정 파운드리인 SMIC의 7nm 이하 공정 생산능력이 개선되면서 대량 양산이 가능해졌기 때문.
- 3Q25 바이두의 AI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센티먼트가 크게 개선, GPU 임대 구독 매출 고성장으로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2024년 YoY 16%에서 2025년 1~3분기 YoY 32%로 가속화되었음. 3Q25 기준 1)GPU 구독, 2)Kunlun 칩 외부 판매, 3)입찰 프로젝트 매출로 구성된 AI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이 전체 클라우드 매출의 68%를 기여. 이를 통해 클라우드 매출(Core 매출의 25%)은 바이두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안착. 2026년에도 급성장세가 예상되는 GPU 구독과 Kunlun 칩 외부 판매 매출이 클라우드 실적을 견인할 전망. 바이두는 최근 몇 년간 중국 대형 테크주 중 가장 저평가 되어있었던 만큼 실적 호조세가 확인된다면 Peer 대비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

자율주행

허사이테크(2525.HK): 엔비디아 공식 라이다 파트너사 선정 및 CAPA 확대로 주가 강세 시현

- 1/5 2026년 CES에서 2026년 연간 LiDAR 생산능력을 기존 200만 대에서 400만 대 이상으로 두 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또한 허사이는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태국 방콕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며, 해당 공장은 2027년 초부터 가동될 예정. 이를 통해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장한다는 계획.
- 1/6 허사이테크는 엔비디아가 개발한 자율주행용 기준 컴퓨팅 아키텍처인 NVIDIA DRIVE AGX Hyperion 10의 LiDAR 파트너로 선정됨. DRIVE Hyperion 10은 모든 차량을 레벨4 자율주행에 대응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준 플랫폼으로 완성차 업체와 개발자들이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AI 기반 자율주행 차량 플릿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허사이는 DRIVE Hyperion의 개방형 양산 대응 아키텍처에 공식 인증된 센서(카메라, LiDAR 등) 파트너사로 합류. 1/6 주가는 5.9% 급등 마감.

위라이드(WRD.US): 글로벌 로보택시 중 최초로 엔비디아 Thor X 칩 탑재

- 1/6 위라이드는 엔비디아의 글로벌 L4급 로보택시 생태계 파트너로서 자사 로보택시 GXR가 세계 최초로 NVIDIA DRIVE Thor X 칩을 탑재한 로보택시가 되었다고 밝힘. 해당 차량은 중국과 UAE에서 이미 완전 무인 상업 운행에 진입한 상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CES 2026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10년 내 전 세계 대부분의 차량이 자율주행화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NVIDIA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L4 로보택시 생태계를 강조. 위라이드를 핵심 참여 기업으로 소개하였음.

플랫폼/테크

전자상거래: 경쟁 심화에 따른 정부 규제안 발표로 주요 기업 주가 하락

- 1/7 SAMR 및 국가인터넷정보부가 공동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규정 감독관리 방법> 및 <라이브 커머스 감독관리 방법>을 발표. 이는 전자상거래 시장 경쟁을 진정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신규 조치 중 하나로 동일 제품의 소비자별 가격 차이 문제 지적과 라이브 커머스 방송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기조에 인터넷 기업 규제 우려 부각되며 관련 기업 주가는 약세를 시현. 1/7 이커머스 기업 주가는 각각 알리바바(9988.HK, -3.3%), 콰이쇼우(1024.HK, -2.4%), 빌리빌리(9626.HK, -1.6%) 하락 마감.

마누스(비상장): 메타의 마누스 인수에 중국 정부 개입 가능성 확대

- 1/7 SCMP는 중국 당국이 중국계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사인 마누스를 인수하기로 한 메타의 거래에 대해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개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검토는 아직 초기 단계로 공식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 인수 포기까지 이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시사. 이번 마누스 사례가 향후 중국 AI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본사 및 사업 기반을 이전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AI: 8개 정부 부처 인공지능 발전 계획 발표

- 1/7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공지능+제조 특별행동 실시 의견>을 발표. 해당 의견은 2027년까지 중국의 인공지능 핵심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규모와 제조업에 대한 AI의 활용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 중국 당국은 2027년까지 제조업 전반에 3~5개의 범용 대형 모델을 심층 적용하고, 산업 특화형 대형 모델을 전면 구축함과 동시에, 100개의 산업용 고품질 데이터 세트 조성과 500개의 대표 응용 시나리오 확산을 통해 제조업의 인공지능 기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

바이트댄스(비상장): 도우인 사업 확장을 위한 선전 제 2본사 설립

- 1/7 SCMP는 바이트댄스가 선전에 도우인 사업을 위한 '제2 본사'를 설립 예정이라고 보도. 선전시 당국에 따르면, 새롭게 조성되는 본사는 도우인 등 핵심 제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 결제와 같은 신규 사업 영역을 육성하고, 로봇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인공지능 연구 거점 및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서비스 센터도 설립할 계획.

알리바바(BABA.US): 최상위 모델 기반 '플라잉 스트리트 뷰' 신규 기능 공개

- 알리바바 그룹 산하 지도 플랫폼 Amap이 자사의 최상위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며, 대규모 소비자 생태계 전반의 고도화를 본격화. 1/7 항저우 발표 행사에서 자체 개발한 실제 환경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신규 기능 '플라잉 스트리트 뷰'를 공개하였으며 해당 기능은 사용자가 레스토랑 등 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3D 가상 투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미니맥스(0100.HK): 1/9 홍콩 상장 통해 최대 42억HKD 조달 예정

- 미니맥스의 홍콩 IPO 일반 청약 경쟁률 1,209배 기록하였으며 1/9 정식 상장 예정. 마진 청약 자금은 2,533억HKD를 돌파하였으며, 공모가는 밴드 151~165HKD에서 최상단인 165HKD으로 확정. 이번 IPO로 미니맥스의 기업가치는 약 507억HKD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조달 규모는 약 38.3억~41.9억HKD에 달할 것으로 전망.
- 1/5 미니맥스와 애지봇은 MOU 체결. 미니맥스는 애지봇에 문자 처리부터 음성 합성까지 포함한 전 과정 AI 기술(TTS)을 지원함으로써 로봇의 음성 상호작용 능력과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할 예정.

딥시크(비상장): LLM 개선 가능한 신규 구조 제시

- 1/4 딥시크 CEO인 량원펑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최신 기술 논문에 기존 대형언어모델(LLM)의 핵심 구조인 ResNet(잔차 네트워크)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인 'mHC(Manifold-Constrained Hyper-Connections)'를 제시. mHC는 기존 하이퍼 커넥션(hyper-connection)과 잔차 네트워크 구조를 개선한 방식으로, 대형 모델에서 계산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 이는 딥시크가 제한된 컴퓨팅 자원으로도 고성능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조적 혁신을 시도해왔음을 시사.

콰이쇼우(1024.HK): Kling AI 앱 세계적으로 인기

- 콰이쇼우 산하 Kling AI 앱이 12월 업그레이드 이후 유저들의 호평이 이어지며 트래픽이 MoM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 2025년 12월 말 기준 일일 방문자 수가 미니맥스의 Hailuo, 미국의 Runway Midjourney 등 글로벌 선두 업체들을 추월. 콰이쇼우 CFO는 2025년 Kling AI의 전체 매출이 1억 4,000만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6년에도 버전 고도화와 B2B 영역 확장을 통해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유니트리(비상장): G1과 R1 로보컵 공식 추천 플랫폼으로 지정

- 유니트리의 G1과 R1 모델이 로보컵(휴머노이드 로봇 축구 컵)의 공식 추천 플랫폼으로 지정. 참가자들은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디자인/코딩/테스트를 진행할 예정. 로보컵은 오는 2050년까지 사람과 경쟁할 수 있는 로봇 축구 팀을 구성하자는 목표로 매년 열리는 국제 대회로 지난해 7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제27회 로보컵에는 약 2천명의 선수들이 참여하였음.

전기차/이차전지

전기차: 유럽 내 중국 전기차 입지 점차 확대

- 중국산 저렴한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국 BYD와 SAIC 소유의 MG(Morris Garages)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영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 전체 판매량의 9.7%(2024년 4.9%에서 두배 증가)를 차지. 영국은 EU와 달리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영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상황.
- BYD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226만대(YoY +27.9%)의 전기차를 판매. 반면, 경쟁사 테슬라는 164만대(YoY -8.6%)를 인도하며 1위 자리를 BYD에 내주었음. 전 세계적인 전기차 캐즘 속 BYD가 전년 대비 판매량을 증가하며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초저가형 모델과 중국 외 지역으로의 공격적 투자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 특히 BYD가 유럽 등 전기차 격전지에서 다양한 저가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됐고, 이것이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판단.

샤오미(1810.HK): 예상을 뛰어넘는 전기차 인도량, 차세대 모델 출시 예정

- 1/4 샤오미는 2026년 전기차 인도 목표를 55만대로 제시. 이는 2025년 실적 41만대 대비 약 34% 증가한 수치로 샤오미 EV는 당초 2025년 인도 목표를 35만대로 설정했으나, 12월 초 이미 조기 달성한 바 있음. 추가로 2026년 중 총 4종의 신규 모델 출시를 계획 중이라고 밝힘.
- 1/7 샤오미 EV는 자사의 첫 번째 전기 세단인 SU7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차세대 SU7'을 오는 4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 차세대 SU7은 기존 모델의 주행 성능 중심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세부 사양이 대폭 개선되며 외관 및 실내 측면에서는 새로운 색상, 휠 디자인, 인테리어 옵션이 추가될 예정. 1/7부터 사전 예약을 개시하며 LiDAR 탑재로 보조 운전 및 안정 기능을 강화.

BYD(1211.HK): Qin 및 Seal 시리즈 장거리 모델 추가로 출시

- 1/7 BYD는 치열해진 전기차 경쟁 속에서 소비자 선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Qin 및 Seal 시리즈의 PHEV 모델 4종에 대해 주행거리를 대폭 확대한 장거리 버전을 이달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장거리 버전이 추가되는 모델은 Qin Plus DM-i, Qin L DM-i, Seal 05 DM-i, Seal 06 DM-i 등 4종으로, 이들 신형 트림은 배터리만으로 210km를 초과하는 주행거리를 제공할 예정.

니오(9866.HK): 2026년 1,000기의 배터리 교환소 신규 설치 계획

- 2026년부터 5세대 배터리 교환소를 본격 도입하며, 연내 최소 1,000기의 교환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 니오는 2023년 12월 공개된 4세대 교환소를 2024년 6월부터 본격 배치했으며, 5세대 교환소는 4세대 대비 처리 용량이 약 20% 확대될 예정. 2025년 12월 이전 시험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식 상용화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 1/6 니오와 CATL은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 배터리 및 배터리 스왑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 양사는 기술, 생태계, 시장 확대 전반에 걸쳐 협력을 심화하여 전기차 산업 내 기술 진보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공동 추진할 계획.
- 1/6 경영진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 가능성에 대해 경고. 니오의 자체 자율주행 칩인 Shenji NX9031, 엔비디아 칩, 차량용 콕핏 칩 등 주요 전장 반도체 전반이 메모리 반도체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 그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있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은 올해 내내 막대한 원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

지리자동차(0175.HK): 향후 2~3년 내 미국 시장 진출 계획 발표 예정

- 1/6 지리자동차는 향후 2~3년 안에 미국 전기차 시장 진출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지리자동차는 진출 가능한 모든 글로벌 시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장 큰 질문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발표가 향후 2~3년 내에 있을 것이라고 발언. 미국이 사실상 중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리자동차가 CES에 참가해 자사 전기차를 미국 언론에 공개하고 시승까지 제공한 것은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둔 사전 행보로 해석됨.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4E	2025E	2024E	2025E			
텐센트(0700.HK)	(1.1)	19.7	21.0	13.9	10.7	14.9	14.0	39.7	(0.4)	2026-03-18
알리바바(BABA.US)	(5.8)	23.4	10.3	4.3	10.6	(11.9)	20.7	(34.5)	1.2	2026-02-20
징동(JD.US)	(1.7)	11.0	10.1	13.7	5.9	(42.4)	24.4	(39.7)	(0.4)	2026-03-06
트립닷컴(9961.HK)	3.1	11.8	19.0	16.1	13.8	86.5	(40.4)	86.2	0.0	2026-02-24
텐센트뮤직(TME.US)	(7.1)	18.2	14.1	15.1	12.7	66.2	(10.4)	45.8	(0.2)	2026-03-18
콰이쇼우(1024.HK)	8.2	13.5	24.9	12.0	9.4	17.9	15.9	46.0	0.4	2026-03-25
하이얼스마트홈(600690.CH)	0.1	11.5	17.4	8.2	5.5	12.8	9.9	13.4	0.0	2026-03-27
샤오미(1810.HK)	(5.8)	20.7	18.7	28.6	19.9	83.4	4.0	79.6	0.2	2026-03-18
레노버(0992.HK)	(8.2)	8.9	24.3	13.4	8.0	14.9	10.6	7.4	0.0	2026-02-16
팝마트(9992.HK)	3.4	19.2	71.5	186.0	35.1	297.5	36.7	291.6	0.0	2026-03-26
미니소(MNSO.US)	(0.2)	16.7	21.9	25.0	19.4	(17.3)	45.8	287.7	(10.7)	2026-03-20
BYD(1211.HK)	(4.2)	21.4	16.4	8.3	15.8	(10.8)	34.1	(14.8)	(0.1)	2026-03-24
샤오펑(9868.HK)	(2.5)	-	(4.4)	92.9	43.2	적지	흑자	적지	(0.1)	2026-03-18
CATL(300750.CH)	0.5	24.2	23.4	16.5	25.0	35.6	25.5	35.6	(0.2)	2026-03-16
양광전력(300274.CH)	(0.1)	24.1	32.0	23.0	18.5	37.7	17.8	36.8	0.2	2026-04-27
북방화창(002371.CH)	10.4	51.3	19.6	31.3	26.7	26.0	34.2	26.2	(0.3)	2026-04-27
SMIC(0981.HK)	0.0	112.1	3.3	15.5	20.5	43.4	47.0	65.4	0.0	2026-02-11
해광정보(688041.CH)	7.7	178.6	13.8	59.1	52.4	74.9	57.0	63.3	2.7	2026-04-07
통푸마이크로(002156.CH)	6.1	50.1	7.8	14.5	14.2	78.0	28.3	88.9	0.0	2026-04-13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1.2)	35.4	20.4	49.7	65.8	49.1	74.4	44.6	0.0	2026-03-10
중지쉬창(300308.CH)	(2.4)	62.5	40.9	57.5	93.7	108.0	99.4	103.9	0.2	2026-04-20
포니AI(PONY.US)	6.5	-	(21.8)	16.1	35.7	적지	적지	적지	0.1	2026-03-25
위라이드(WRD.US)	3.1	-	(17.9)	70.0	102.6	적지	적지	적자	-	2026-03-13
허사이테크(HSAI.US)	12.5	64.3	7.1	51.3	44.8	흑자	53.4	흑자	0.1	2026-03-10
호라이즌로보틱스(9660.HK)	8.1	-	(46.0)	50.5	67.8	적자	적지	적자	0.0	2026-03-23
킹소프트(688111.CH)	6.0	80.2	15.0	16.9	18.7	14.4	21.0	17.0	0.0	2026-03-18
중신증권(6030.HK)	2.5	13.5	9.8	(14.4)	7.9	34.6	7.3	38.5	0.0	2026-03-26
평균	1.4	38.8	13.8	33.1	29.8	46.1	27.4	60.4	(0.3)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플랫폼 기업 Non-IFRS 기준, 홍콩 상장 종목은 반기 및 연간 실적만 발표,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예상치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1월 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는 2026년 1월 9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